No.120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나날이 어린이 신문

상대팀 골키퍼가 우리 선수를 살렸다

11월 14일 이재성 선수가 골대에 머리를 부딪칠 뻔한 상황. 출처 : 쿠팡플레이

11월 14일 한국과 볼리비아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한국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죠. 볼리비아는 국제축구연맹 피파(FIFA)가 매기는 '축구 순위'가 76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22위인 우리나라가 진다면 굴욕이겠죠.

볼리비아는 시작부터 매우 거칠게 경기를 펼쳤어요. 우리 공격수들을 막기 위해 집요하게 몸싸움을 했죠. 우리 대표팀의 황희찬 선수는 볼리비아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자 가슴으로 밀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강인 선수 역시 볼리비아의 파울 때문에 불만이 쌓이던 중 강하게 달려들어 상대를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경기장의 분위기는 초반부터 험악해졌어요.

그러던 전반 9분 모두가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대표팀 이재성 선수가 헤더슛으로 골을 넣기 위해 몸을 날렸는데, 그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머리가 골대를 향한 거예요. 골대에 부딪쳐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 순간 볼리비아의 골키퍼가 손으로 이재성 선수의 머리를 밀쳐냈어요. 이재성 선수는 골대에 얼굴을 부딪치기는 했지만, 볼리비아 골키퍼가 손으로 막아준 덕분에 속력이 줄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볼리비아 골키퍼의 스포츠맨십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비록 승리를 위해 경쟁하는 사이지만,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을 스포츠맨십이라 해요.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꼭 지켜야 할 정신이죠. 사람들은 "골키퍼 아니었으면 이재성 큰일 날 뻔했다.", "감동적이다. 골키퍼에게 고맙다."라며 칭찬을 했어요.

문해력 쑥

오늘의 단어

- 굴욕 남에게 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음.
- 집요하다 몹시 끈질기고 고집스럽다.
- 신경전 경기 중에 말이나 몸짓으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
- 파울 경기 규칙을 어기는 행동.
- 헤더슛 축구에서 머리로 공을 치는 슛.

독해력 쑥

볼리비아 팀은 경기 초반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①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게 경기했다.
② 몸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다.
③ 거친 플레이를 자주 했다.
④ 선수들이 모두 웃으며 경기했다.

독해력 쑥

기사에서 설명한 '스포츠맨십'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기
② 상대를 얕보며 승부하기
③ 이기기 위해 반칙하기
④ 상대를 존중하며 바르게 겨루기

사고력 쑥

볼리비아 골키퍼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이 콘텐츠는 나날이 어린이 신문 구독자를 위한 콘텐츠로 무단 캡쳐 및 불법 공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